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 연중 시기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 24)

미사 시간	
미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샛별 Pr.	매주 주일 10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 주소 변경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 ▶ 9/22(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본당 11:30, 공소 17:30)
- ▶ 9/24(화) 연중 제 25 주간 화요일 미사 (본당 20:00)
- ▶ 9/29(일) 연중 제 26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 ◎ 해밀튼 성 유대절 본당 30 주년 축하 골프대회

- ▶ 접수 마감: 오늘 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골프에 참여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저녁식사와 라플 헬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17:00, \$55 + 라플비)

### ▶ 일정 및 장소: 이번 주 (토) 12:00 South Brook GC

- ▶ 골프 준비 위원회 회의가 22 일, 27 일 하상실에서 있습니다
- 문의: 행사분과장 김한욱 에릭

### ◎ 성모회 단풍관광

식사 및 사전 준비를 위하여 가능하면 신청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친지도 초대하셔도 됩니다.

### ▶ 일시: 10/5(토) 7시 성당 집합, 7:30 출발

### ▶ 장소: 미드랜드 성지

▶ 회비: \$30

▶ 예상 정원 인원: 50 명

▶ 문의: 성모회장 우경숙 율리아

### ◎ 사목회의 ▶ 9/27(금) 20:00 대철실

### ◎ 구역장 회의 ▶ 9/29(일) 미사 후 친교식사 전 대철실

### ◎ 2024-2025 주일학교 안내

※ 오늘부터 입구 쪽 마지막 줄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 ▶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 해 주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문의: 박혜영 수산나

### ◎ 일일 피정

- ▶ 제목: 나의 삶, 나의 노래
- ▶ 대상: 전 신자 (본당, 공소)
- ▶ 일시: 10/19(토) 10:00 ~ 12:00
- ▶ 장소: 본당 친교실
- ▶ 문의: 김의수 안드레아

### 공소 소식

#### ▶ 공소 성지 순례

- 일시: 10월 12일 (토) 오후 1시 미사
- 장소) 베팔로 파티마 성당 (National Shrine Basilica Our Lady of Fatima)
- 기타) 도시락 각자 지참
- (영주권자와 비자소지자

-사전에 미국 국경에서 194 발급요망)

문의) 총무 김재익 베네딕도

- ▶ 금일 식사는 순경회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히 잘먹겠습니다.

#### ▶ 축하합니다. 9월 공소 신자 축일자

(9/1) 남클린턴 프란치스코

(9/29) 진영천 미카엘

### 단체 소식

#### ▶ 복사단, 자모회 회합

친교식사 후 대철실에서 있습니다.

### 구역 소식

#### ▶ 5 구역 9/22 일 13:30 친교실

### 친교식사

9/22: 4 구역(짜장밥 \$5/\$3)

9/29: 6 구역                  10/ 6: 5 구역

10/13:7 구역

###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40 명)			
주일현금	\$1775	교무금	\$200
감사현금	\$0	성전건립	\$725

감사합니다.

###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 9월 본당 세례 축일자 (44 명)

9/ 3 그레고리오(박기형, 김준홍), 그레고리아(김정혜)

9/ 4 모니카(이경구)

9/ 5 데레사(김지혜, 이순복, 민연환, 권민아)  
제노(이준우)

9/ 7 레지나(황미옥, 이나라)

9/ 8 아델라(정세빈), 마리아(홍미경)

9/17 힐데가르트(이은영)

9/18 소피아(소성희), 리카르다(송지은)

9/21 마태오(정현기, 권재성, 정원규)

9/23 비오(박신준)                  9/26 유티니(홍유나)

9/29 미카엘라, (정나현, 조정순, 이병예, 김재원, 박아인)  
미카엘(윤성희, 강호경, 풍민준, 김세현, 손정일,  
유준, 정상현, 이영섭)

라파엘라(정가현, 양남숙, 김지원, 박해인)

라파엘(양향남, 유세진)

가브리엘라(박재인, 한성원), 가브리엘(최임환)

##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9/22	김성수 베드로	최다인 안나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이인선 젬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9/29	이은영 힐데가르트	최다희 보나 이준우 바오로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이인선 젬마 박규혜 카타리나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박 혁 스텔파노 신부  
김범우순교자성지 담당

매일 김범우 순교자 묘역을 드나들면서, 새삼스레 순교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는 목숨조차 바쳤을까 생각해 봅니다.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타니아의 “라자로에게 가자.”는 예수님이 말씀에 토마스 사도가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요한 11,16) 하고 비장하게 대답합니다. 과거 서구에서는 순교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하면서 앞다투어 선교지로 갔다고 합니다. 순교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죽음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친 이유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고 탄압하는 자들 때문이지 죽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순교)을 하는 이유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정신으로, 온 힘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순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순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과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폭력 앞에서 우리 신앙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돈독하지 않은 교우님들이 많습니다. 하느님 때문에 목숨을 바친 신앙의 선조님들이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으며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바라는 것이 있어서입니까? 하느님이 목적입니까, 세상의 재물이 목적입니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의심쟁이로만 알려진 토마스 사도의 비장한 결기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비록 비루한 신앙인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을 말씀을 떳떳하게 여겨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하느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멸시, 고통과 희생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대가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숙명 아닐까요?



##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024. 9. 22)

제 1 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3,1-9

화답송 시편 126(125), 1-2 ㄱㄴ. 2 ㄷㄹ-3.4-5.6(◎ 5)



후렴.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 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찬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 ㄴ-39

복음 환호송 1 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3-26